특별기고

정 석 희 교수
전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100주년기념교회 집사
세계상위 2% 과학자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지난 이맘때에 "나는 어떤 빌레몬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의 중간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그때 저는 용서와 사랑의 빌레몬에서, 세상에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빌레몬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맡은 바를 성심껏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과분한 상복도 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웃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선물도 있었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나중에 교수가 되면 과학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 꿈이 방송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싱글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 때면,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아름다운 아나운서와 연애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남대 대외협력실에서 "사람, 담다"라는 전남대 공식 유튜브 방송에 저를 국가유산청장 허민 교수님 다음 순서로 출연시켜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 전남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정석희 전남대"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저는 담담하게 지금까지의 길을 나누었고, 다음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지만, 상자를 열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행동이 상자 속의 운명을 바꾼다는 믿음도 당신의 운명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제 나눔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감동 깊게 본 어떤 분이 마지막 문장이 누구의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쓰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이라는 질문이 있었고, 고심 끝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방송 촬영 때에는 낯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직원 김수람 씨가 강권하는 바람에 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성경적인 문장입니다. 임용 후 한창 성경을 탐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개혁주의에 충실했던 그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의 노력의 가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디어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대부분 정해졌으니 분수에 맞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과학과 행동유전학 연구는 부모의 계급과 소득, 교육 수준과 유전, 그리고 초기 환경이 성인 이후의 소득과 학력, 건강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와 제도에 따라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유전 효과의 발현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와 제도 아래에 태어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한 국가와 제도 안에서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더라도 그 출발점의 차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연구를 단순화하여 "DNA가 다 정한다", "계급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균형 잡힌 태도는, 출발점의 다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 그리고 더 나은 공동선과 부강한 나라를 위해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소명을 따르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의 나눔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 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누군가를 위한 기도

어머니는 기도할 일이 있으면 무등산 자락에 있는 헐몬산 기도원이라는 산속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소나무 하나 뽑을 정도로 열심히 강력한 기도를 목놓아 하셨지요. 저는 가끔 그런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는 기도하는 분들을 물끄러미 보곤 했다는게 정확합니다. 방언에 익숙치 않았기에 제 기도는 동어반복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거의 없었고, 기도제목을 종이에 적어 읽듯이 명확했기에 기도시간이 길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보니 기도할 일이 많아집니다. 제 개인의 일보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또는 밤 늦게 예배당을 찾아 적어 놓은 기도제목 노트를 펼치고 성도들을 위해 대부분을 그리고 가끔 저를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습관적 기도도 있고, 간절함이 넘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바뀐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가던 기억을 떠올려 몰래 예전 기도원을 찾아 기도와 산책을 겸하여 다녀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무례한 이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들, 본래의 표정을 감추고 웃음을 머금고 일하는 이들이 제가 만나는 성도들의 삶임을 몸소 체험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존경받아왔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교회 성도님이 암재발로 재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아픔이 마치 부족한 저의 기도인 것 같아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도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감사의 기도제목을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기도제목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항암치료의 고단함과 절망감을 뒤로하고, 지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을 감사한다"는 기도제목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부모님 세대의 성실함과 믿음을 본받아 오늘도 저와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되새겨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진 일 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믿음은 좋은데 직장생활은 엉망?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직장생활은 영 엉망이야."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는가? 하지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쓸모없는 나무에서 쓸 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마7:17)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도 심판을 말씀하셨다(마7:19).

삶의 열매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에서 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21절)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구원이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우리가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열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생활에서 풍성하게 크리스천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성경에는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행함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안타깝게 말씀하신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천다운 티를 낼 수 있게 인도하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
표어 :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는 해(마가복음2장 1-12절)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10 / 4부 12:50
• 주일오후 2:30
• 수요방예배 7:00
담임 임준태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 예수사랑 가족사랑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00
• 금요기도회 7:30
담임 이원제 목사
62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서길 124-18 (도천동 365-11)
대표전화 : 062)371-920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창교회
표어 : 모든 죽음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20)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00
담임 김승원 목사
62287 광주 광산구 구촌반촌길 291(신창동)
대표전화: 062)953-537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 "일어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이사60:1-4, 마태복음5:14-16, 에베소서 5:8)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문희성 목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1번길 31(노대동)
대표전화: 062)676-883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표어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15:26, 시30:2-4, 살전5:23)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찬양 오후 2:00
• 수요기도회 저녁 7:00
• 새벽기도회 새벽 5:00
www.gjsn.net
담임 조택현 목사
61657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대표전화 : 062)652-1004 FAX: 062)671-5313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 주께 구하라, 기라 열방으로(시 2편 8절)
•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수요말씀예배 : 오후 7:00
• 유·초등부 : 오후 12:30
• 중·고등부 : 오후 12:30
• 청년대학부 :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 매일 5:00
• 금요기도회 : 오후 8:00
담임 고석원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로 43
대표전화: 062)366-3058 , FAX: 062)369-3058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 사명자의 삶 전도 선교 구제 장학 고아섬김 (마가복음 12:30)
• 주일오전 10:40
• 주일오후 1:40
• 수요방예배 7:15
• 금요기도회 8: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범택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54-9(금호동)
대표전화: 062)375-7962 · 372-1004, 010-4605-7962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희망교회
표어 :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오후청년 1:5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30
담임 허태호 목사
62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가기로 79-5번지
대표전화: 062)971-9190 FAX: 062)972-9190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표어 : "힘과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교회(시18:1-3)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사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주교회
표어 :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 (학 2:9)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저녁 7:00
• 수요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규성 목사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062)365-7004, 070-7572-9092 FAX: 062)365-7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산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청년부예배 오후 12:30
• 금요제자훈련 저녁 8:30
• 아동부, 중, 고등부 오전9:00각 부서
• 수요방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혜영 목사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77-25
대표전화: 062)956-0114, 951-3221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6:8)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찬양예배 3:00
• 수요 밤 7:30
원로 이성수 목사 담임 정종원 목사
57222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내기길 6
대표전화: (061)393-4551 FAX: 061)393-4552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벧엘교회
표어 : "여호와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잠10:22)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목요찬양예배 7:00 (싱로와 찬양예배와 함께)
• 새벽기도회 5:00
• 교회학교예배 오전 9:30
담임 김양수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13번길 7-1 (쌍촌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표어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사43:18)
• 주일낮 1부 오전 7:50
• 주일낮 2부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 수요저녁예배 7:30
담임 임춘수 목사
6141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
대표전화: 062)263-0623 FAX: 062)264-8750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 주여, 처음하게 하소서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찬양 1:30
• 수요방예배 6:30
• 새벽기도회 5:00
www.youngrak.or.kr
담임 김성기 목사
59754 전남 여수시 신월로 668-1(국동)
대표전화 : 061)641-6510-3 , FAX: 061)641-651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표어 :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고전13:13)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2:00
• 수요예배 저녁 7:30
• 새벽예배 오전 5:00
• 금요기도회 오후 4:00
담임 권점용 목사
61660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 7번길 8
대표전화 : 062)651-0388, 070-8275-6228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다
• 주일예배 11:00
• 수요기도회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30
담임 백병철 목사
나주 봉황면 죽석길 2(보건지소앞) bbc-1221@hanmail.net
전화 : 010-6832-1033(백병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표어 : 참 교제가 있는 행복한 교회 (행2:42-47)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3:30
• 수요예배 저녁 7:00
• 목요기도회 오전 10:00
• 금요기도회 저녁 7:30
• 새벽예배 오전 5:00
담임 서한국 목사
61614 광주광역시 남구 근분로 62번길 7
대표전화 : 062)352-9191, 364-7171 FAX: 364-7175